

AIDS NEWS

30세 한국인 과학자 에이즈치료 '새 영웅'



어머니와 함께한 전태욱박사

한국인이 에이즈 치료방법 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주인공은 올해 30세인 재미 과학자 전태욱(全泰昱)박사.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포스트닥터 과정을 밟고 있는 그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비활동성 T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함으로써 세계 의학계의 숙원인 에이즈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났다. 미국의 CNN방송과 유에스에이투데이지는 NIH의 발표를 인용, 알레르기과 감염질환 연구소의 전박사팀이 '인터루킨 2(IL2)'라는 시약을 14명의 에이즈환자에게 주사한 결과 3명의 에이즈 환자에서 전혀 HIV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 전박사로부터 에이즈 정복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국내] 20대 미혼 남성들중 84%가 성경험

-IL 2는 어떻게 HIV에 감염된 T세포를 죽이는가.

"IL 2를 투여하면 비활동성 T세포가 활성화되며 지나치게 활동성이 높아진 T세포는 탈진해서 사망한다. T세포가 사망하는 경우 HIV는 더이상 잠복할 곳을 잃게 된다. 그러면 기존 항암제를 투여해 HIV 자체를 죽인다. IL 2와 함께 항암제를 투여해서 HIV가 잠복할 수 있는 T세포와 함께 HIV를 죽이는 것이다."

-비활동성이 T세포에서 HIV가 발견되지 않으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NIH가 HIV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확인한 에이즈 환자들의 경우 실제로 3억3천만개의 세포 중 어떤 것에서도 HIV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에이즈약 투여 후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재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우리가 모르는 인체, 예를들면 뇌속 어딘가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완전박멸을 주장하기는 아직 어렵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계 에이즈학계의 주인공은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 데이비드 호였다. 그가 만든 에이즈 치료제는 3가지 치료제를 섞은 이른바 '콕테일 치료제', '콕테일'을

20대 미혼 한국 남성들의 84%가 성경험이 있고 성지식은 주로 친구나 성

복용한 에이즈 환자들마다 HIV가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96년 12월 송년호에서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그러나 호박사의 치료방법이 나온 뒤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약을 복용한 에이즈 환자 가운데 치료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바이러스가 약을 피해 T세포에 숨었기 때문.

기존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HIV가 인체내에서 외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하는 T세포에 잠복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과 IL 2 투여로 T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전박사였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97년 5월과 11월 권위있는 학술지인 내이처와 PNAS에 발표해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전박사는 세계적인 에이즈 과학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서울대에 두번이나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는 서울대 진학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캘리포니아주립대(샌버나디노 분교)를 수석 졸업한 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인 스스로 "한국에서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이 오히려 내게 행운이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98/12/4)

인간집지를 통해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첫 경험의 상대자는 31%가 직업여

성이었고 이들 가운데 11%는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병의 감염경로는 직업여성을 통한 감염이 61%, 애인이 17%였다.

조사당시까지 몇명과 상관계를 가졌느냐는 질문에 39%가 6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서울=聯合)

[백신]먹는 AIDS 백신 한남대 배용수교수 연구팀, 국내 개발



한남대 배용수 교수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점막 흡수형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의 예방백

신이 개발돼 독일에서 원숭이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빠르면 2년 안으로 국내 과학자가 개발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백신이 나올지도 모른다.

한남대 배용수(42·미생물학과) 교수와 엘트웰(주) 부설 미래기술 연구소(소장 김기태) 연구팀은 먹는 소아마비 예방 백신(경구용 폴리오바이러스 사빈1형)의 유전자를 조작해 AIDS 예방 생백신을 개발, 독일 국립영장류 연구소와 원숭이를 이용한 전임상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팀이 개발한 백신은 간단하게 액체를 한두 방울 입으로 넣는 경구용인 점이 특징이다. 배 교수는 입으로 먹어 점막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의 예방백신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라고 밝혔다.

배 교수팀은 이미 30년간 사용돼 안전성이 입증된 소아마비 예방백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99년 1월 말쯤부터 독일 국립 영장류 연구소와 원숭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임상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조선일보 98/11/25)

올해 세계 HIV 감염자 600만명 늘듯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수가 올해 6백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 보고서가 전망했다. '에이즈, HIV에 대한 공동 유엔 계획'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는 HIV에 감염된 숫자는 모두 3천3백만 명으로 이중 3분의 2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새로운 감염자 5백80만명중 70%는 사하라 이남 지역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미와 유럽에서는 혼합 약품 이용으로 에이즈 사망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새로이 발생한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런던 AFP=聯合)

남아프리카 에이즈 비상사태 직면 UNAIDS경고 "2010년엔 국민 25% 감염"

사하라 이남의 남아프리카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유엔에이즈 프로그램(UNAIDS)이 경

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 나라가 HIV감염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성명확산의 원인이 되는 이동노동체제가 일반화되어 있고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 나라에서는 매일 1천5백명씩 HIV에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다.(요하네스버그 AFP=聯合)

西유럽 에이즈 사망률 84% 줄었다

서유럽에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사망률이 지난 3년 사이에 무려 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필립스 박사는 에이즈 사망률은 1995년 9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이는 프로테아제(抑制劑)라는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치료제를 혼합투여하는 방법이 개발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런던 AP=聯合)

이란 HIV 감염자 무려 22,000명 달해

약 2억2천명의 이란인들이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아리아넨가 알리 아크바르 사마리 보건차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란에서 HIV 양성 환자의 공식 집계는 1천4백47명이지만 비공식통계에 따르면 2만2천명에 달하며, 지난해 1백76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85년 한 살 먹은 어린이가 수입된 피의 수혈을 받은 후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그후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혈액 수입이 금지됐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란 남부와 걸프지역 항구 주변에서 보고되고 있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이란내 에이즈 보균자의 30%가 해외에서 감염됐다.(테헤란 DPA=聯合)

동남아 에이즈 감염 아프리카 수준 육박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에이즈 저지를 위한 효율적 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감염률이 아프리카 수준에 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아동보호기금(유니세프)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국장이 밝혔다.

쿤 가우탐 국장은 아시아지역에서는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가 에이즈 및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방콕=聯合)

[토픽] 아들에 에이즈 주사한 아버지 종신형

양육비를 대지 않으려고 생후 11개월짜리 친아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혈액을 주사한 비정한 아버지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美미주리주 세인트 찰스 순회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92년 2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훔쳐온 HIV감염혈액을 아들에게 주사한 브라이언 스튜어트(32)에 대해 1급 폭행죄를 인정. 지난주 종신형을 판결했다.

현재 7살인 아들은 5살 때부터 에이즈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하루 24시간을 약에 의존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세인트 찰스<美미주리주>) AP, AFP=聯合)

태국군 에이즈감염자 징집금지 철회

태국군은 에이즈 바이러스(HIV)와 에이즈 감염자들을 군복무에서 제외 시키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군대변인인 솜쿠안 생파타란 대령은 "군은 징병 전에 징집병의 혈액을 검사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질병은 검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군은 지난 97년 개정된 51년의 징병법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솜쿠안 대령은 기자회견에서 에이즈감염자들에 대한 징집금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법이 통과된 지난 54년 당시만 해도 에이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었다고 지적하고 군대는 HIV와 에이즈 감염자들을 보살필 여유가 없다고 밝혔었다.(방콕=聯合)

[토픽] 세계 에이즈날에 에이즈 환자 자살

케냐 나이로비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세계 에이즈의 날인 12월 1일 아침을 택해 투신자살했다고 케냐의 KTN TV 가 보도.

이 TV는 간호사의 말을 인용, 나이로비의 케냐타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한 고령 환자가 그의 오랜 병고를 멈추기 위해 목숨을 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병원의 다른 환자들은 이 노인이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택해 자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노인은 병원 7층 복도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고. (나이로비 AFP=聯合)

[토픽] 사운 스톤 "집에 콘돔 2백개씩 상배해야"



에로 영화 '원초적 본능'의 스타 사운 스톤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가정마다 콘돔 2백개씩 구비

해야 한다고 역설.

스톤은 지난해 12월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98년 한 해에만 3백만명의 청소년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상기시킨 뒤 "진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가정마다 콘돔을 충분히 비치해 아무 생각없이 꺼내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스톤은 청소년들이 콘돔을 갖고 물풍선 놀이를 하든지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더욱 좋으면서 "10대들의 섹스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부연.(유엔본부 AFP=聯合)

[미국의학계] 에이즈 혈액검사 신뢰성 의문

혈액검사 결과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들 중 소변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드러난 사례가 늘고 있다. 미의학계는 최근 『혈액검사만으로는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새로운 소변검사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미 임상실험연구소(CRL) 소장 로버트 스타웃 박사는 『새로 개발된 소

AIDS NEWS

변경사 방식을 사용한 결과 혈액검사 때보다 훨씬 많은 에이즈 감염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에서는 5만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 두가지 검사법을 병행했는데 혈액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소변검사에서는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이 19명이었다.(한국일보 98/12/5)

아프리카 에이즈 주범은 불량 콘돔?

뉴욕 타임스는 아시아 콘돔 메이커들의 텃밭 처분한 불량 콘돔이 아프리카에 유통돼 에이즈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가 특히 심

한 곳은 아프리카 지역의 콘돔 중간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는 콘돔은 대부분 품질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불량품이다.

국제 구호단체들은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콘돔을 무료 보급하고 있다.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 아시아 콘돔업체들은 통관과정에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안전 테스트도 받지 않은 싸구려 콘돔을 아프리카에 팔아 넘기고 있다고 타임스는 폭로했다. 남아공은 최근 불량 콘돔의 집중 단속에 나서서 [켄조]상표를 단 인도의 [폴로 라텍스사] 제품 400만개를 돌려 보냈고, 중국산 [트윈 로터스 콘돔]도 불량으로 밝혀내고 회수중이다.(조선일보 98/12/29)

는 군대내 HIV 감염의 85%가 매춘에 의한 것이라며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5대 황금률'로 운동, 독서, 명상 등과 함께 자위를 제시한 안내서를 군인들에게 배포.(뉴델리 APD=聯合)

[국내] 에이즈환자 에이즈 합병증, 결핵-폐렴 많다



서울대 최강원교수

국내 에이즈환자의 주요 합병증은 미국 환자와는 달리 비교적 예방과 치료가 쉬운 결핵 폐렴 등인 것으로 조사

됐다. 서울대의대 감염내과 최강원교수팀은 87년부터 11년동안 이 병원에서 치료한 에이즈환자 1백 73명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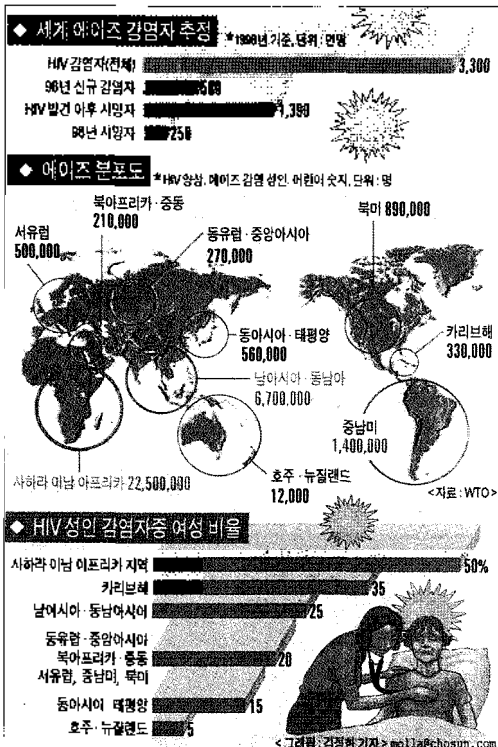
미국 에이즈 환자의 30~40%가 지난 합병증은 HIV-8'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암의 일종인 '카포세 육종' 그러나 최교수팀에 따르면 이 질환은 국내 에이즈 환자의 약 2%만이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합병증이 나타난 환자수는 1백 9명(63%)이었으며 주요 합병증은 △결핵 49명(25%) △구강 칸디다증 37명(21%) △대상포진 36명(20) △폐렴 18명(10%)의 순. 이 기간 사망자는 24명이었으며 주요 원인은 △폐렴(7명) △자살(4명) △결핵(3명) 등이었다.(동아일보 98/12/14) A

인도군 매춘보다는 자위가 낫다 캠페인

5백여만명에 이르는 에이즈 바이러스(AIDS) 보급자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인도는 군인들에게 에이즈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창녀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느니 차라리 자위행위로 성적인 갈증을 해소하도록 권고하는 고육책을 택했다고 인도 일간지 아시안 에이지가 보도.

인도군 의무사령부



1998년도 세계에이즈 현황 (동아일보 발췌)